

일본 경제 동향_2017년 7월

(일본 · EU FTA, 큰 틀 합의)

< 목 차 >

I. 일본 경제 지표	1
II.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2
1. 경기 완만한 회복기조	2
2. 무역수지 흑자반전	6
3. 엔고반전·주가상승·금리상승	9
4. 해외직접투자 증가반전	11
III. 일본의 주요 정책	12
1. 일본·EU FTA 큰 틀 합의	12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15
1. 대일 무역적자 확대	15
2. 일본인 직접투자 3분기 연속 증가	17
V. 참고 자료	19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19
2. 주요 경제 일정	21

I. 일본 경제 지표

구 분	2015	2016	2016			2017				
			2/4	3/4	4/4	1/4	3월	4월	5월	6월
경기 동향지수(일치지수, 2010=100)	-	-	-	-	-	-	114.4	117.1	115.5	-
GDP증가율(연율,%)	1.2	1.0	2.2	1.2	1.2	1.0p)	-	-	-	-
국내투자 (조엔)	민간설비투자	70.1	75.9	15.8	19.9	20.5	24.0p)	-	-	-
	공공투자	23.4	24.3	4.3	6.1	7.2	7.2p)	-	-	-
해외직접투자(조엔)*	70.0	68.2	12.7	18.6	17.1	20.8	8.2	3.3	3.7	-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기비	0.5	△0.3	△0.1	0.0	0.2	0.2	0.4	0.2	-
	전년동기비	0.5	△0.3	△0.4	△0.5	△0.3	0.2	0.3	0.4	-
실업률(%)	3.4	3.4	3.2	3.0	3.1	2.9	2.8	2.8	3.1	-
수출(조엔)	75.6	70.0	17.0	17.0	18.6	19.0	7.2	6.3	5.9	6.6
수입(조엔)	78.5	66.0	15.5	16.0	17.2	18.6	6.6	5.8	6.1	6.2
무역수지(조엔)	△2.9	4.1	1.5	1.0	1.4	0.4	0.6	0.5	-0.2	0.4
경상수지(조엔)	16.4	20.6	4.6	5.7	4.2	5.8	2.9	2.0	1.7	-
환율	달러	121.1	108.8	108.1	102.4	109.4	113.6	113.0	110.1	112.2
	원화(100엔)	935	1,068	1,076	1,095	1,059	1,015.7	1,004	1,029	1,003
금리(10년물,%)	0.36	△0.051	△0.121	△0.128	△0.007	0.072	0.069	0.029	0.039	0.064
주가(닛케이)	19,203	16,920	16,393	16,500	17,951	19,241	19,340	18,736	19,727	20,046

주: p)는 2차 속보치 *실행액 기준, 자료: 일본 내각부, 재무성, 총무성, 후생노동성, 한국은행

☐ (경기판단) 경기 완만한 회복기조

- '17.5월 경기동향지수(2010년=100)는 115.5로 전월비 1.6p 하락

☐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 상승

- '17.5월 전월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2%

☐ (무역수지) 무역수지는 4,399억 엔 적자

- '17.6월 수출은 6조 6,076억 엔, 수입은 6조 1,676억 엔

☐ (환율) 엔고 반전

- '17.6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 평균치는 110.9 엔으로 전월비 1.2% 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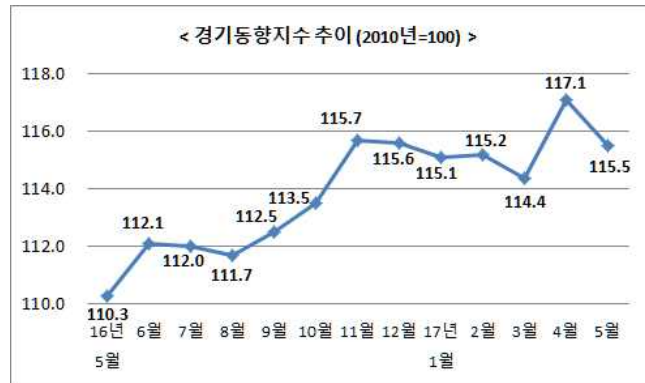
* '17.6월 엔/원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1,029원으로 전월비 2.6% 엔고·원저

II.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1. 경기 완만한 회복기조

□ (경기기조 판단)

- 경기는 완만한 회복을 지속
 - 수출과 생산 및 설비투자는 회복
 - 소비도 견조한 고용·소득의 영향으로 완만한 회복
- 다만,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5월 경기 동향지수(일치지수, 2010년 100)는 전월보다 1.6p 하락한 115.5를 기록



자료 : 내각부

- 5월초 대형연휴 전 승용차 등 수송기기 판매증가에 대한 반동감소의 영향이 지수 하락에 기여
- 그러나 일본 내각부는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기조판단을 8개월째 유지

□ (전 망)

- 전반적으로 고용·소득환경의 개선이 지속되는 가운데 회복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각종 정책의 효과도 있어 앞으로도 완만한 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수개월 이후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수도 104.7로 전월보다 0.5p 상승
- 경기가 완만한 회복궤도에 오르면서 디플레이션 탈출의 장애요인인 공급과잉문제도 해소되고 있으나 해외경제의 불확실성이나 금융자본시장의 영향은 불안요소로 상존
- 특히 수요증가를 반영한 소비의 확대가 기업실적의 회복과 임금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계속할지의 여부가 큰 초점이 되고 있음

<GDP>

- 일본내각부가 5월18일 발표한 2017년 1분기 실질GDP성장률(2차 속보치=확정치)은 전기비 0.3%, 연율 1.0%로 1차 속보치(전기비 0.5%, 연율 2.2%)에 비하여 대폭 하향 수정
 - 하방수정의 원인은 원유 등 재고의 압축속도가 전기보다 가속된 데 있음
 - GDP의 증가율은 하향 수정되었으나 플러스성장은 5분기 연속
- 0.3% 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내수가 0.2%p, 외수가 0.1%p로 내수와 외수 모두 성장에 기여함
 - 수출은 1차 속보치와 같은 전기비 2.1% 증가로 비교적 크게 증가함.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자부품 수출과 중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수출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임
 - 내수는 소비가 0.3%(1차 속보치 0.4%) 증가로 5분기 연속 플러스. 생선식품의 가격 상승이 진정된 가운데 스마트폰과 의류 등의 소비증가도 기여함. 주택투자는 0.3%(1차 속보치 0.7%) 증가함
 - 설비투자는 0.6% 증가(1차 속보치 0.2% 증가), 2016년 4분기의 급증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고 있으나 플러스를 유지
 - 공공사업은 1차 속보치와 같은 0.1% 감소로 3분기 연속 마이너스임. 그러나 2016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의 효과가 빨리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도 있어 앞으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최근 일본경제연구센터가 발표한 7월 민간경제전망에 의하면, 2017년 4-6월기의 실질경제성장률은 공공투자에 힘입어 6월에 발표한 전망치를 상회한 1.9%
 - 2017년도의 실질경제성장률은 1.4%, 2018년도는 1.1%로 전망

<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 >

구 분	2015	2016	2015			2016				2017
			4-6월	7-9월	10-12월	1-3월	4-6월	7-9월	10-12월	1-3월
전기비	1.2	1.0	△0.1	0.2	△0.2	0.6	0.4	0.3	0.3	0.3p)
전기비연율			△0.3	0.7	△1.0	2.5	1.6	1.0	1.4	1.0p)
전년동기비			1.7	2.0	0.9	0.5	0.9	1.1	1.6	1.3p)

자료: 내각부, p)는 2차 속보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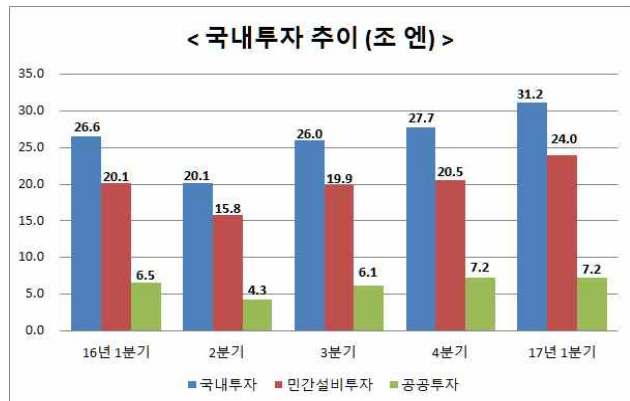
<국내 투자>

□ '17.1분기 국내투자, GDP의 23.3%

- '17.1분기 국내투자(민간설비투자+ 공공투자: 명목기준)규모는 전기비 12.5% 증가한 31.2조 엔으로 GDP의 23.3%

□ (민간설비투자)

- '17.1분기 민간설비투자는 명목기준으로 전기비 17.0% 증가한 24.0조 엔, 국내 투자의 76.9%를 차지
- 일본은행의 단기경제관측조사(2017년 6월 조사)에 의하면, 전 산업의 2017년도 설비투자계획은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설비과잉감도 개선경향
- 앞으로 설비투자는 기업수익의 개선, 성장분야에 대한 대응 등을 배경으로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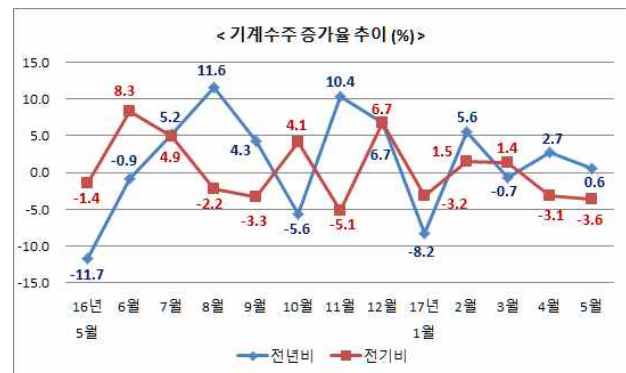


자료 : 내각부

- 다만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5월 기계수주는 비제조업의 부진으로 전월비 3.6% 감소

□ (공공투자)

- '17.1분기 공공투자는 명목기준으로 전기비 0.1% 감소한 7.2조 엔으로 국내투자의 23.1%를 차지
- 최근 공공투자의 견조세가 확대되고 있음
 - '17.4월의 공공공사 거래액은 전월비 2.1% 증가



자료 : 경산성, 내각부

- '17.5월의 공공공사 수주액은 전년동월비 34.9% 증가
- 2016년 8월 2일 각의에서 결정된 28조엔 규모의 경제대책 등이 실시됨에 따라 공공 투자에 의한 경기부양효과가 계속 나타날 전망

<소비자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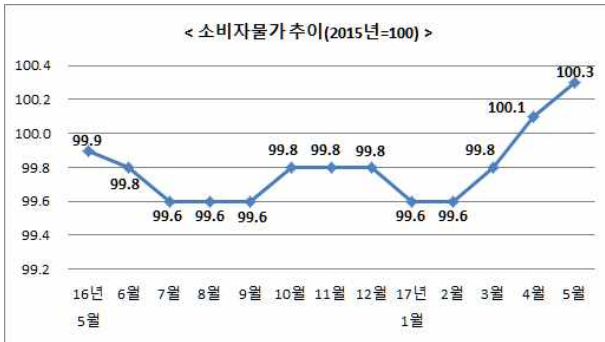
□ '17.5월 소비자물가 0.2% 상승

- '17.5월 소비자물가지수(생선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는 100.3(2015년= 100)로 전월비 0.2% 상승
 - 전년동월비로는 0.4% 상승,
 - 유가상승이 소비자물가상승을 견인
-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배경으로 완만하게나마 상승폭이 확대 될 것이나 횡보권내에서 추이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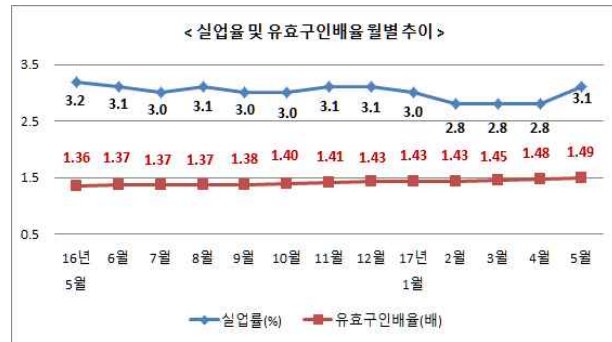
<실업률>

□ 고용사정 개선 지속

- '17.5월 완전 실업률은 3.1%로 전월의 2.8%에 비해 악화
 - 고용사정의 개선을 배경으로 보다 좋은 노동조건을 찾아 자발적인 이직이 증가
 - 노동력인구와 완전실업자 수는 증가한 반면 취업자 수는 감소
- 유효구인배율은 전월보다 상승
 - '17.5월 유효구인배율은 1.49배로 전월비 0.01p 상승. 이는 1974년 2월 이후 43년 3개월 만에 높은 수준임
 - 전반적으로 노동수급의 팽박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과 운수·우편업 외에 직업소개·노동자파견업 등 서비스업에서도 일손부족이 심각한 상황
- 일본 정부는 계속 고용 사정이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 고령화를 배경으로 수요가 높은 의료·복지·서비스 분야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자료 : 총무성



자료 : 후생노동성

2. 무역수지 흑자 반전

(중 합) 수출급증에 의한 무역수지 흑자 반전

- '17.6월 무역수지는 4,399억 엔 흑자로 반전
 - 수출급증이 흑자전환에 기여
 - 최대 적자국인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전월의 3,118억 엔에서 2,034억 엔으로 축소된 한편, 최대 흑자국인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전월의 4,111억 엔에서 5,874억 엔으로 확대
 - 對 한국 무역수지흑자는 전월의 2,077억 엔에서 2,521억 엔으로 확대
- 한편, 2017년 상반기 무역수지는 1조 444억 엔 흑자로 전년동기비 41.1% 축소
 - 유가상승이 흑자폭 감소에 기여
 - 對중국 무역적자는 전년 동기의 2조 5,888억 엔에서 1조 8,752억 엔으로 축소된 한편, 對미국 흑자는 전년 동기의 3조 4,120억 엔에서 3조 2,223억 엔으로 축소

< 2017년 6월 일본의 수출입 (조엔, %) >

	2017.5월			2017.6월			2017.1-6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수 출	5.9	14.9	-6.3	6.6	9.7	11.9	37.8	9.5
수 입	6.1	17.8	5.2	6.2	15.5	1.6	36.7	12.2
수 지	-0.2	329.6	-	0.4	-35.9	-	1.0	-41.1

자료 : 재무성

□ (수 출) '17.6월 수출, 금액·물량 모두 증가

- '17.6월 수출은 전월대비 11.9% 증가한 6조 6,076억 엔
 - 수출물량도 전월대비 12.6% 증가
- 5대 수출 품목은 전월과 변함이 없는 가운데, 모든 품목의 수출이 증가
 - 자동차의 수출 증가폭이 29.7%로 가장 크며, 이어 자동차부품이 15.9%로 뒤를 이음

< 2017년 6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 (억 엔, %) >

순위	품목	2017.5월			2017.6월			2017.1-6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자동차	8,055	8.2	-13.3	10,451	5.0	29.7	55,750	1.6
2	반도체 등 전자부품	2,967	16.3	-9.2	3,291	11.3	10.9	18,901	10.9
3	자동차부품	2,795	13.4	-17.3	3,239	13.1	15.9	18,861	15.4
4	철강	2,760	20.0	6.6	2,764	19.0	0.1	16,342	15.3
5	원동기	2,021	20.9	-15.0	2,225	11.1	10.1	13,353	12.9

자료 : 재무성

- 주요 지역·국가에 대한 수출도 모두 증가
 - 미국에 대한 수출증가폭이 20.5%로 가장 큼
 - 한국에 대한 수출 증가폭은 8.4%
- 한편, 2017년 상반기 수출은 37조 7,873억 엔으로 전년동기대비 9.5% 증가
 - 對아시아 반도체제조장치, 對미 자동차부품 수출이 수출증가를 견인
 - 품목별로는 자동차부품의 수출 증가폭이 15.4%로 가장 큼
 - 주요 지역·국가별로는 모두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 한국에 대한 수출 증가폭이 22.5%로 가장 큼

< 2017년 6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출 (억 엔, %) >

순위	국가	2017.5월			2017.6월			2017.1-6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미국	10,824	11.6	-12.2	13,043	7.1	20.5	72,495	2.9
2	중국	11,173	23.9	-5.9	12,478	19.5	11.7	69,355	17.7
3	ASEAN	8,947	14.3	-5.0	9,567	7.5	6.9	56,446	10.7
4	EU	6,924	19.8	-3.5	7,262	9.6	4.9	42,347	4.7
5	한국	4,658	22.9	-7.5	5,051	26.7	8.4	29,599	22.5
6	대만	3,335	-0.9	-12.3	3,746	1.2	12.3	22,099	8.4

자료 : 일본 재무성

□ (수 입) '17.6월 수입도 금액, 물량 모두 증가

- '17.6월 수입은 전월비 1.6% 증가한 6조 1,676억 엔
 - 수입물량도 전월비 1.9% 증가
- 5대 수입 품목은 전월과 변함이 없는 가운데, 석탄의 수입증가폭이 14.3%로 가장 큼
 - 수입 감소품목 중에서는 원유의 감소폭이 -9.3%로 가장 큼

< 2017년 6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억 엔, %) >

순위	품목	2017.5월			2017.6월			2017.1-6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원유	5,275	17.0	-7.3	4,780	3.1	-9.3	35,392	36.9
2	액화천연가스	3,095	68.6	-0.6	2,962	43.9	-4.3	20,142	20.7
3	석탄	2,175	74.7	13.6	2,485	115.9	14.3	13,325	73.1
3	의약품	2,285	18.1	8.4	2,404	1.0	5.2	13,281	-4.5
5	반도체 등 전자부품	2,099	10.3	2.9	2,375	14.4	13.1	13,222	5.4

자료 : 일본 재무성

- 주요 지역·국가로부터의 수입은 EU와 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
 - 호주로부터의 수입 증가폭이 18.2%로 가장 큼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 감소
- 한편, 2017년 상반기 수입은 36조 7,429억 엔으로 전년동기 대비 12.2% 증가
 - 경기회복에 따른 내수증가가 수입증가에 기여
 - 품목별로는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입이 증가한 가운데, 석탄의 수입 증가폭이 73.1%로 가장 큼
 - 주요 지역·국가별로는 모든 지역·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한 가운데, 호주로부터의 수입 증가폭이 39.9%로 가장 큼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5.3% 증가

< 2017년 6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입 (억 엔, %) >

순위	국가	2017.5월			2017.6월			2017.1-6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중국	14,291	9.6	-0.1	14,511	5.2	1.5	88,107	3.9
2	ASEAN	9,375	22.8	6.9	9,568	15.8	2.1	56,194	11.2
3	EU	7,329	12.5	11.6	7,263	11.6	-0.9	42,004	3.8
4	미국	6,713	7.4	4.0	7,169	19.3	6.8	40,271	10.7
5	호주	3,462	51.1	0.9	4,092	83.0	18.2	21,775	39.9
6	한국	2,581	17.5	9.6	2,530	12.0	-2.0	15,318	15.3

자료 : 일본 재무성

3. 엔고반전 · 주가 상승 · 금리 상승

□ (주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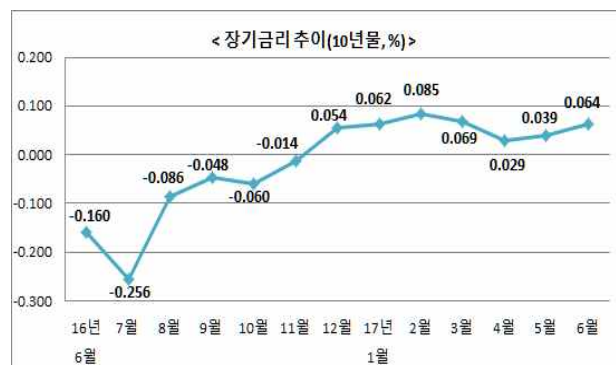
- ‘17.6월 평균 주가는 전월비 1.6% 상승한 20,046엔
- 3개월 연속 상승

□ (금 리)

- ‘17.6월 평균 10년 장기국채 금리는 전월비 64.1% 상승한 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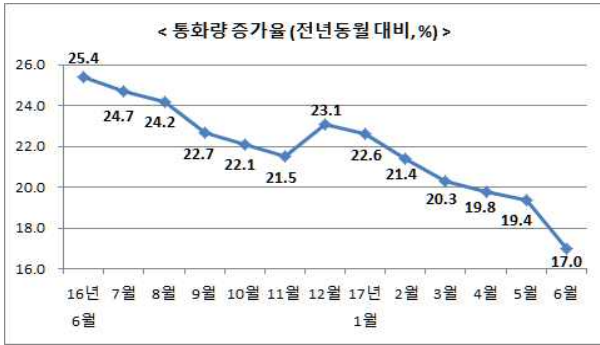
자료 : 일본경제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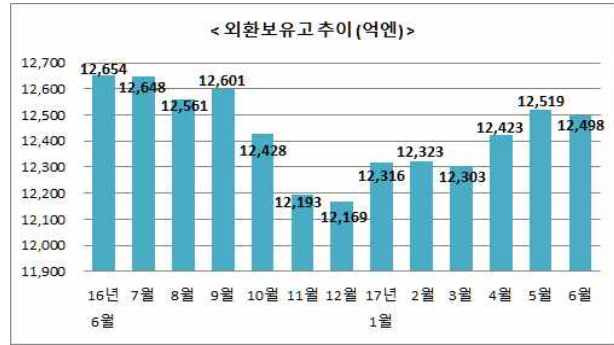
자료 : 일본상호증권

□ (통화량)

- ‘17.6월 본원통화(머니리베이스 기준), 통화량증가율은 일본은행의 자산매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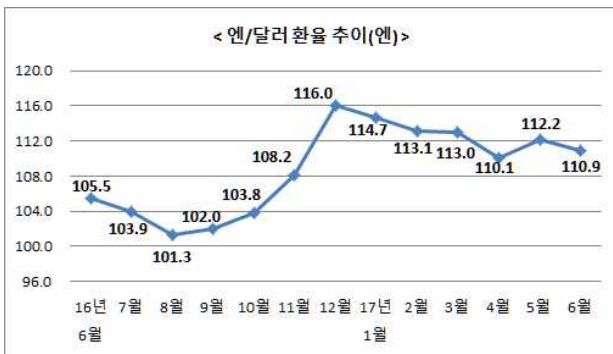
자료 : 일본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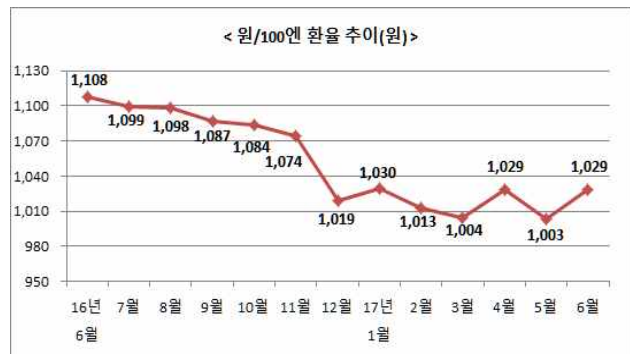
자료 : 재무성

□ (환 율)

- ‘17.6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평균치는 전월비 1.2% 상승한 110.9엔(엔고)
- ‘17.7월 들어서는 7월 21일 현재 111.9엔으로 다소 엔고세 약화
- 최근 엔고 반전은 미국이 물가안정 하에서 금리인상 필요성이 낮아진 데 배경을 두고 있음
- 그러나 일본의 금융완화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엔저 반전을 야기할 가능성은 있음
- ‘17.6월 엔화의 대 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1,029원으로 전월의 1,003원에 비하여 2.6% 엔고·원저



자료 : 일본은행



자료 : 한국은행

4. 해외직접투자 증가반전

□ 최대 투자지역인 유럽 지역에 대한 투자급증이 전체 해외직접투자 증가를 견인

○ '17년 5월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액은 37,111억 엔으로 전월비 13.1% 증가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국제수지 기준, 억 엔, %) >

		2016	2016			2017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4월	5월	1-5월
금 액		681,657	127,675	186,332	171,402	207,560	32,799	37,111	277,470
증가율	전기비	-2.1	-35.0	45.9	-8.0	38.2	-59.6	13.1	-
	전년동기비	-2.1	-13.7	5.8	-21.2	3.2	-13.2	-5.3	-0.2

자료 : 일본 재무성, 주 : 해외직접투자액은 실행액 기준 416901

○ 최대투자지역인 유럽지역에 대한 투자가 40.1% 증가

- 반면 주된 투자지역의 하나인 북미 지역에 대한 투자는 전월비 0.5% 감소
- 특히 미국에 대한 투자가 43.8%의 큰 폭 감소
- 對 한국 직접투자는 364억 엔으로 전월비 13.4% 증가

<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해외직접투자 (국제수지 기준, 억 엔,%) >

국가별	2016		2016		2017				
	금액	증가율*	4분기		1분기		5월		1-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대세계	681,657	-1.7	171,402	-8.0	207,560	21.1	37,111	13.1	277,470
아시아	80,321	-43.3	20,555	18.8	19,928	-3.1	5,901	-2.1	31,855
중 국	13,076	-10.8	3,567	19.7	3,398	-4.7	1,006	-1.1	5,421
한 국	3,461	-26.6	912	25.1	882	-3.3	364	13.4	1,567
북 미	181,747	-23.4	38,586	22.8	51,436	33.3	13,253	-0.5	78,003
미 국	176,406	-23.4	37,109	22.1	50,528	36.2	7,317	-43.8	70,860
중남미	36,110	58.7	9,125	-54.6	3,998	-56.2	1,072	35.7	5,860
유 럽	366,263	35.8	95,998	-15.6	118,330	23.3	15,934	40.1	145,611
대양주	12,925	-32.4	5,049	189.7	3,379	-33.1	259	-61.3	4,308
중동	1,581	-12.4	172	26.5	947	450.6	44	-69.4	1,135
아프리카	7,297	6.6	1,919	-0.6	1,762	-8.2	647	35.6	2,886

자료 : 일본 재무성, * 전기비

III. 일본의 주요 정책

1. 일본 · EU FTA, 큰 틀 합의

- 일본정부와 EU가 2013년에 시작한 FTA(EPA:경제연대협정)교섭의 큰 틀에 합의하기로 양 정상회담에서 선언
- 아베 총리는 일본·EU FTA가 아베노믹스의 중요한 근간임을 강조하면서, 일본·EU FTA의 큰 틀 합의를 발판으로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의 「TPP11」 교섭 진전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

□ 전체 품목의 95%가 관세철폐 대상

- 일본과 EU간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전체의 95%에 달할 전망으로, 세계 경제·무역의 30%를 점하는 대경제권이 탄생

< 일본-EU간 큰 틀 합의가 확인된 관세품목 >

	품목	현행 관세율	합의 내용
E U ↓ 일 본	와인	15%또는 리터당 125엔	즉시철폐
	돼지고기	저가육:482엔/kg 고가육:4.3%	단계적으로 철폐·삭감
	파스타	30엔/kg	10년에 걸쳐 철폐
	초코렛	10%	10년에 걸쳐 철폐
일 본 ↓ E U	치즈 (모차렐라 등)	29.8%	3만~5만 톤의 저율관세수입한도를 설정, 15년에 한도 내 관세를 제로로
	가방, 구두 등	최고 30%	일정기간 후 철폐
	자동차	10%	발효 후 7년에 걸쳐 철폐
	자동차부품	2~4%전 후	90%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즉시 철폐
	전기제품	최고 14%	많은 품목에서 즉시 철폐(TV는 5년 유예)

일본경제신문(2017.7.6)

- 이번 큰 틀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 최종합의는 금년 중 실현될 수 있을 전망
- 큰 틀 합의의 내용은 이제까지의 교섭에서 일본·EU가 무역품목의 95%이상의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TPP와 같은 정도의 자유화 수준

- 이는 TPP와 같은 정도의 자유화수준임. 관세철폐 품목 중, 교섭이 난항을 보인 것은 유럽산 치즈와 일본산 승용차였으나 각료급 협의에서 해결됨
- EU측이 시장개방을 요구한 치즈는 일본 측이 유럽산 치즈에 저율관세로 수입하는 새로운 한도를 설정, 한도 내에서의 세율을 15년에 걸쳐 제로로 할 전망

□ 일본차에 대한 관세 철폐

- EU측은 일본차에 관세(최고 10%)를 협정발효 후 7년에 걸쳐 철폐할 방침임

□ 유럽산 와인에 대한 관세 철폐

- 이외에 일본 측은 EU산 와인에 부과하는 관세(병당 약 93엔)를 즉시 철폐할 방침임
- EU산 돼지고기와 파스타, 목재 등에 대한 관세도 삭감·철폐키로 거의 합의를 보았으며, EU측도 일본산 녹차와 일본 술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함
- 큰 틀 합의 후에도 일본·EU간 협의를 계속, 금년 중으로 최종합의를 이루어낼 방향임

□ 일본·EU FTA의 GDP 증대효과

- 일본·EU FTA는 여러 측면에서 실리를 동반하게 되는데, GDP에 대한 효과를 보면 EU측에 0.76%, 일본 측에게는 0.29%의 GDP 증대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시산
- 세코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EU FTA로 거대한 유럽시장이 일본의 중소기업들에게 큰 기회가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함
 - EU도 대일관세를 연간 10억 유로 정도 절감할 수 있어 가공식품과 화학품, 전기기기의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
- 나아가 일본·EU FTA는 폭넓은 분야에 걸쳐 룰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무역의 40%를 점하는 선진경제권의 연대로 그 룰이 세계 공통 기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일본·EU 기업들은 그만큼 사업을 하기가 쉬워진다는 이점이 있음

□ TPP에의 파급효과

- 일본-EU FTA의 큰 틀 합의는 TPP의 조기발효를 위한 논의를 촉진시킬 것으로 크게 기대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베 총리는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EU FTA 합의가 TPP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
 - TPP는 당초 세계 GDP의 40%였으나 미국이 빠지더라도 15%이기 때문에, 일본은 GDP의 30%를 점하는 일본·EU FTA와 함께 TPP의 틀 유지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임
- 또 일본·EU FTA로 일본 유제품 시장에서 유럽산 제품에 대한 미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미국의 축산업계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을 TPP에 복귀케 하는 효과도 있음

□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일본-EU FTA는 유럽시장에서 이미 EU와 FTA를 체결한 한국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것임
 -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일본-EU FTA가 타결되는 **경우에 따라서** 對EU 수출규모가 크고 한·일간 관세율 차이가 큰 수송기기, 화학제품, 전기기기, 기계산업의 對EU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또 일본 시장 내에서 한국의 수출 규모와 관세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일-EU FTA 타결로 인해 농수산물식품, 섬유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1. 대일 무역적자 확대

□ (중 합)

- '17.6월 대일무역적자는 2,401백만 달러로 3개월 만에 확대
 - 대일수입의 급증반전이 적자확대에 기여
- '17.6월의 대일 수출의존도는 전월의 4.9%에서 4.6%로 하락한 반면, 대일 수입의존도는 전월의 11.1%에서 11.8%로 상승
 -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의 대일무역의존도는 전월의 7.8%에서 변동 없음
- 한편, 2017년 상반기 중 대일무역적자는 13,822백만 달러 적자로 전년동기비 31.1% 증가

< 2017년 5월 대일 수출입 및 무역수지 (백만 달러,%) >

	2017.5월			2017.6월			2017.1-6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대일 수출	2,207	8.1	1.7	2,374	10.4	7.6	13,266	15.3
대일 수입	4,381	20.5	-4.1	4,775	22.8	9.0	27,088	22.8
무역 수지	-2,174	36.4	-9.3	-2,401	38.1	10.4	-13,822	31.1

자료 : 한국무역통계

□ (대일 수출)

- '17. 6월 대일 수출은 2,374백만 달러로 전월비 7.6% 증가
 - 이는 동기간 중 일본의 수입증가율 1.6%와 비교하여 대일경쟁력이 강화되었음을 시사

	대일수출증가율(%)		총수출증가율(%)		일본의 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2017.5월	8.1	1.7	13.3	-11.5	17.8	5.2
2017.6월	10.4	7.6	13.6	14.3	15.5	1.6
2017.1-6월	15.3	-	15.8	-	12.2	-

- 전월과 비교하여, 전기기기 대신에 산업기계가 10대 수출품목에 포함
 - 대일수출 증가품목 중에서는 정밀화학제품의 수출 증가폭이 42.2%로 가장 큼
 - 대일수출 감소품목 중에서는 광물성연료의 수출 감소폭이 -13.4%로 가장 큼
- 한편, 2017년 상반기 중 대일 수출은 13,266백만 달러로 전년동기비 15.3% 증가
 - 10대 대일수출 품목 중에서는 전자부품만이 유일하게 대일 수출이 감소

< 2017년 6월 대일수출 10대 품목 (백만달러, %) >

순위	품목명	2017.5월			2017.6월			2017.1-6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총계	2,207	8.1	1.7	2,374	10.4	7.6	13,266	15.3
1	철강제품	341	32.0	-8.3	345	43.1	1.2	1,950	36.3
2	광물성연료	262	39.7	28.4	227	29.5	-13.4	1,448	55.5
3	정밀화학제품	116	-4.4	-0.9	165	26.7	42.2	747	14.9
4	전자부품	142	-1.0	1.4	156	-4.0	9.9	859	-2.2
5	산업용전자제품	103	-0.3	-12.7	142	-19.7	37.9	737	10.7
6	수송기계	118	-19.1	135.	138	11.6	16.9	815	11.5
7	석유화학제품	143	41.8	-9.5	136	18.0	-4.9	834	44.8
8	기계요소공구·금형	95	-2.7	1.1	101	4.0	6.3	550	0.3
9	농산물	84	2.3	5.0	96	14.8	14.3	514	13.0
10	산업기계	64	4.1	10.3	81	24.2	26.6	376	5.7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대일 수입)

- '17.6월 대일수입은 4,775백만 달러로 전월비 9.0% 증가
 - 이는 동 기간 중 총수입증가율 3.2%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국내시장에서 일본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시사

	대일 수입증가율(%)		총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2017.5월	20.5	-4.1	19.1	3.6
2017.6월	22.8	9.0	19.8	3.2
2017.1-6월	22.8	-	21.3	-

- 전월과 비교하여 10대 수입 품목은 변함이 없는 가운데, 산업기계와 석유화학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의 대일수입이 증가
 - 대일수입 증가품목 중에서는 산업용전자제품의 증가폭이 26%로 가장 큼
 - 대일수입 감소품목 중에서는 석유화학제품의 감소폭이 -14.1%로 가장 큼
- 한편, 2017년 상반기 중 대일수입은 27,088백만 달러로 전년동기비 22.8% 증가
 - 10대 대일수입 품목 중에서는 산업용전자제품만이 유일하게 대일수입이 감소

< 2017년 6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 (백만달러, %) >

순 위	품목명	2017.5월			2017.6월			2017.1-6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총 계	4,381	20.5	-4.1	4,775	22.8	9.0	27,088	22.8
1	정밀기계	702	175.0	2.9	825	224.3	17.5	4,129	201.8
2	전자부품	501	7.3	3.7	540	35.7	7.8	3,122	9.8
3	철강제품	482	16.2	-6.8	531	10.1	10.2	3,031	20.7
4	석유화학제품	383	17.7	-5.4	329	-0.1	-14.1	2,339	23.6
5	정밀화학제품	312	4.6	-11.9	320	-6.7	2.6	1,991	4.4
6	기초산업기계	242	8.6	-19.9	289	16.8	19.4	1,627	11.3
7	산업용전자제품	227	-14.9	-4.6	286	8.1	26.0	1,467	-3.2
8	수송기계	227	4.6	18.2	258	15.3	13.7	1,276	2.7
9	플라스틱제품	184	0.7	-4.7	196	3.1	6.5	1,133	5.7
10	산업기계	200	32.1	11.1	194	0.2	-3.0	1,094	5.9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일본인 직접투자 3분기 연속 증가

□ (동 향) '17.2분기 일본의 對韓직접투자 3분기 연속 증가

- '17.2분기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412백만 달러로 전기비 1.2% 증가
 - 증가폭은 전기의 13.4%에 크게 못 미침
 - 건수 면에서도 전기비 42% 증가
 - 동 기간 중 전체 외국인투자액은 전기비 49.2%의 큰 폭 증가

- '17.상반기 중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819백만 달러로 전년동기비 14.4% 증가

<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실적 (신고기준, 건, 백만달러, %) >

	2015		2016		2016.4분기		2017.1분기		2017.2분기		2017.1-2분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본의 대한투자	315 (-10.5)	1,665 (-33.1)	299 (-5.1)	1,246 (-25.2)	91 (40.0)	359 (85.1)	69 (-24.2)	407 (13.4)	98 (42.0)	412 (1.2)	167 (16.8)	819 (14.4)
전체 외국인투자	2,698 (9.5)	20,909 (5.1)	2,987 (10.7)	21,299 (1.9)	844 (17.9)	6,250 (39.0)	632 (-25.1)	3,851 (-38.4)	655 (3.6)	5,745 (49.2)	1,287 (-9.9)	9,596 (-9.9)

주 : ()내는 전기비 증가율, *전년동기비 증가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 (일본기업의 대한 직접투자 사례)

- 일본 니타젤라틴과 한국 삼미산업 합작법인이 3천만 달러를 투자해 당진 송산 2-1 외국인투자지역 부지에 식품·의약품 젤라틴 생산 공장을 건립(2017.7.24. 연합뉴스)
- 일본의 정밀화학업체인 스미토모세이카가 80억 엔을 투자하여 한국 여수의 고희수성 수지(SAP) 생산 공장의 생산능력을 11만 8,000톤에서 24만 톤 정도로 늘리는 한편, 금년 여름경 착공하여 2018년 12월 가동 예정이라고 발표 (2017.6.11.news 1)
- 일본 호리바 제작소가 300만 달러 상당의 수질 측정기기를 대구 ATT(주)R&D센터 운영 부문에 투자하여 공동연구 및 제품개발을 실시(2017.6.27. 아시아뉴스통신)
 - 호리바제작소는 세계 27개국 49개사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분석·계측시스템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특히 자동차계측, 과학계측, 환경·프로세스계측, 의료용 계측, 반도체계측분야에서 연매출 2조원 규모의 세계 톱 기업임

□ (시사점)

- 국내 투자환경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투자유치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및 민간의 각종 한일교류채널의 네트워킹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최근 엔저에 따른 일본 기업들의 해외투자유인 감소와 유턴 사례에 관한 분석 등을 통한 차별화된 對韓투자 유치 전략이 필요

V. 참고 자료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2017.6월~2017.7월)

□ 국내 기관

-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현황과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17년 7월22일
http://www.kif.re.kr/kif2/publication/pub_detail.aspx?menuid=18&nodeid=188&controlno=217144&searchtext=&volumeid=4498&searchindex=-1
- 『일본 서비스기업의 對아세안 진출전략 분석과 시사점』 KOTRA, 2017년 7월14일
<http://news.kotra.or.kr/user/reports/kotranews/20/usrReportsView.do?page=1&reportsIdx=7915&orderByType=image&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ReportGbn=title&searchText>
- 『일본 TV업체, 고부가가치의 OLED TV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 산업연구원, 2017년 7월12일
http://www.kiet.re.kr/kiet_web/index.jsp?sub_num=12&state=view&tab=list&idx=53496&recom=2735&ord=0
- 『일-EU EPA 타결과 시사점』 국제무역연구원, 2017년 7월12일
http://tri.kita.net/newtri2/report/iitandtrade_view.jsp?pageNum=1&nGubun=10&s_con=&s_text=&sStartDt=&sEndDt=&sOrder=&sClassification=&actionName=&sNo=1677
- 『[일본경제포럼] 일본 강소기업의 원동력 모노즈쿠리의 이해와 변화』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7년 7월10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3980>
- 『[일본경제포럼] 일본 강소기업의 성공사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7년 7월10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3980&no=43979>
- 『[일본경제포럼] 작지만 강한 기업은 키워지는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7년 7월10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3979&no=43978>
- 『일본의 금융완화정책 출구전략 시행에 대한 논의』 한국금융연구원, 2017년 7월8일
<http://www.kif.re.kr/kif2/login/login.aspx?returnurl=/kif2/publication/viewer.aspx?controlno=216511>
- 『2017 KOTRA 외국인투자기업 성공사례집』 KOTRA, 2017년 6월29일
<http://news.kotra.or.kr/user/reports/kotranews/20/usrReportsView.do?page=1&reportsIdx=7835&orderByType=image&searchStartDate=&searchEndDate=>

□ 일본 기관

- 『2017년도 경제재정백서』 일본 내각부, 2017년 7월22일
http://www5.cao.go.jp/j-j/wp/wp-je17/index_pdf.html
- 『연구개발투자와 제품전환』 경제산업연구소, 2017년 7월21일
<http://www.rieti.go.jp/jp/publications/nts/17e101.html>
- 『신속하고 대담한 개혁이 시급한 성장전략』 다이와종합연구소, 2017년 7월13일
http://www.dir.co.jp/research/report/japan/mlothers/20170712_012140.html
-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변화』 경제산업연구소, 2017년 7월12일
<http://www.rieti.go.jp/jp/publications/nts/17j042.html>
- 『서비스품질의 미일 비교』 일본 생산성본부, 2017년 7월12일
<http://activity.jpc-net.jp/detail/01.data/activity001511/attached.pdf>
- 『제로금리하 재정·금융정책의 효과』 경제산업성, 2017년 7월11일
<http://www.camri.or.jp/files/libs/920/201707100952396177.pdf>
- 『연구개발세제의 이용상황과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조사』 경제산업성, 2017년 7월8일
http://www.meti.go.jp/meti_lib/report/H28FY/000442.pdf
- 『성장의 원천이 보이지 않고 있음: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제일생명경제연구소, 2017년 7월1일
<http://group.dai-ichi-life.co.jp/dlri/pdf/macro/2017/kuma170629ET.pdf>
- 『통상백서 2017』 경제산업성, 2017년 6월28일
<http://www.meti.go.jp/report/tsuhaku2017/index.html>

2. 주요 경제 일정

<7월 실적>

일자	주요 내용
4	- 제3차 日-EU FTA 협상에 관한 주요 각료회의(도쿄)
6	- 日-EU 정상회담(벨기에, 브뤼셀)
7	- G20 정상회의(~8일까지, 독일) - 정상회담(한일, 日-인도, 日-터키, 일러)
8	- 정상회담(日-영국, 중일, 日-싱가포르, 日-노르웨이, 미일)
9	- 아베 총리, 북유럽 국가들(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 등) 방문(~12일까지)
10	- 5월 국제수지 발표(재무성) * 무역수지 -1,151억 엔, 서비스수지 421억 엔, 경상수지 1조 6,539억 엔
12	- TPP 수석협산관회의(~14일까지, 가나가와현)
14	- 日-요르단 정상회담(도쿄)
19	- 일본은행 정책위원회·금융정책결정회의(~20일까지) - 6월 방일 외국인객수 통계 발표(일본정부 관광국) * '16.6월에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수는 234만 6,5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2% 증가, '16.1~6월 방일 외국인 총계는 1,375만 7,3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7.4% 증가 * '16.1월에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56만 8,9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3.8% 증가, '16.1~6월 방일 한국인 총계는 339만 75,9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2.5% 증가
20	- 6월 무역통계 발표(재무성) * 수출 6조 6,076억 엔(전월대비 +9.7%), 수입 6조 1,676억 엔(+15.5%), 수지 4,399억 엔(2개월 만에 흑자 회복)
21	- 한일·일한 의원연맹이 아베 총리를 예방(도쿄)
24	-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D-3년

<8월(예정)>

일자	주요 내용
상순	- 한일 외무장관 회담 - 캄보디아 총리, 일본 방문
하순	- 일러 외무차관급 협의